

## 이틀에 나누어 보는 5시간의 블록버스터 장편 연극 〈해리포터(Harry Potter and the Cursed Child)〉

글 김준영(런던 통신원, 런던 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수많은 화제를 뿌리며 2013년 12월 처음으로 『해리포터』가 뮤지컬이 아닌 연극으로 재탄생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해도 이미 사전 개발기간은 1년이나 흐른 뒤였다. 작가인 롤링(J.K. Rowling)은 이미 기존 이야기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작품의 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이듬해 5월 제작진을 구성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해리포터가 처음 책으로 출판된 날로부터 정확히 18주년을 기념하는 2015년 6월 26일 공연의 제목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극장이 확정되었다.

성인이 된 해리와 론, 그리고 헤르미온느가 각각 자신의 아이들을 호그와트 익스프레스에 태워 마법학교 첫 학기를 배움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신작 블록버스터 연극 〈해리포터(Harry Potter and the Cursed Child)〉의 오프닝은 장기간 드레스 리허설처럼 시작되었다. 그리고 총 5시간(1, 2편 각각 2시간 30분-관객은 티켓만 구한다면 하루에 두 편을 모두 관람할 수 있으며, 이틀에 걸쳐 따로따로 관람할 수도 있다)동안 진행되는 이 공연은 제작진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된다. 프리뷰 기간에는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언제나 프레스 엠바고(취재한 사항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일정기간 미룸)를 약속하는데 요즘처럼 SNS가 세포조각같이 퍼져있는 세상에 비밀을 어떻게 감출 수 있다는 말인가? 『데일리미러(Daily Mirror)』의 한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흘려 팬들의 비난을 받았고 제작사에서는 철저한 보안을 위해 공연 후 'Keep The Secret' 배지를 적극적으로 배부했으며, 작가까지 나서서 관객들의 입단속을 돕는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다.

작품을 보고도 본 내용을 말할 수 없었던 금기의 프리뷰 기간 동안

엠마 왓슨(영화에서 헤르미온느 역)이 기대 없이 공연을 보고 '자신이 출연한 영화보다 더 훌륭하다'며 찬사를 보냈더니 주목받는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말을 아끼던 언론들이 저마다 "헤르미온느가 헤르미온느를 만나다"란 기사를 통해 번죽만 울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공식 오프닝을 알리자 지난해 7월 25일 자정을 시작으로 언론사의 평가가 시작되었고 『가디언(Guardian)』의 일부 기자들은 지난 30년간 보고 평해왔던 어떤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국 작품이라고 극찬을 했으며,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문자 관객들의 반응은 너무 다양해서 꼭 집어낼 수 없을 정도였다고 입을 모았다. 예의 바른(?) 관객들 사이에서는 사실 공식 오프닝 이후에도 이야기의 줄거리를 발설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암묵적인 약속이 된 듯하다.

『해리포터』를 보고 성장한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 세계 곳곳에서 모여들었으며 한국에서 무작정 찾아온 팬들 또한 작품을 보고자 했으나 번번이 티켓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공연계의 티켓 판매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통 영미권 상업극장에서 공연을 제작하면 프로듀서 측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티켓을 대량으로 풀어 가능한 많은 좌석이 점유되길 기대하기 마련인데, 이번 작품은 제작사와 극장 단 두 곳에 예매처를 두고 그곳을 통해서만 티켓이 발권될 수 있도록 제한을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제작비의 빠른 회수에 관심이 있었다기 보단 시장 가격을 낮은 선으로 통제해 일반인들 가운데 일생에 단 한 번도 공연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극장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과 함께 '포터헤드(Potterhead)'라 불리는 두터운 팬층으로 애초에 티켓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방증하는 태도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스오피스 성적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앞서 2017년 2월까지 전석(1480석)이 매일 매진되었고 이미 지난해 8월 8일 25만 장이 추가로 풀렸으나 대다수 공연의 추가 매진소식이 들리고 있으니 내년 하반기 기회를 다시 기다려야 할 지경이다. 글라스코 국립극장 상임 연출가로 한국에서 뮤지컬 <원스(Once)>, 연극 <렛미인(Let the right one in)>으로 최근 한국 관객들에게도 비교적 얼굴과 이름이 알려져 있는 존 티파니(John Tiffany) 감독 그리고 늘 그와 함께 작업하는 스티븐 호켓(Steven Hoggett, ‘안무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움직임 연출가’로 소개되는)의 탁월한 무대적 환상이 매순간 돋보이는 장편 연극에 이젠 좌석을 구하지 못한 관객들에게 공식 채널이 아닌 사이트에서 프리미엄이 붙은 티켓과 극장 앞 암포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제작사 측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제 당시 사용한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면 입장을 거부하고 있고 또 영미 공연장 티켓 공식 판매처에는 어떠한 공연이라 하더라도 발권된 티켓을 극장 앞에서 관객들에게 티켓을 배부하는 일 또한 티켓 에이전트 연합 규정에 위반하는 판매 방식이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표를 구하지 못한 세계 해리포터 팬들에게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다음주 티켓 40매를 저렴한 가격(Best 좌석을 20파운드)으로 공급하는데 ‘The Friday Forty’라 부르는 이 티켓의 기회를 가지는 것도 마치 로또에 당첨될 확률(극장 측 발표에 따르면 1일 대기자 평균 15,000여 명)이라 링크를 적어두며 관심 있는 팬들의 행운을 빌어본다.

(<http://www.harrypottertheplay.com/ticket-information/#tickets-bottom-section>)



알렉스 프라이스(드레이코 말포이 역), 안토니 보일(스클피우스 말포이 역) ©Charlie Gray



폴 손리(론 위즐리 역), 노마 드메즈웨니(헤르미온느 그레인저 역), 세릴 스키트(로즈 그레인저-위즐리) ©Charlie Gray



제이미 파커(해리 포터 역), 샘 클레메트(알버스 포터 역), 포피 밀러(지니 포터 역) ©Charlie Gray



2015년 워크숍(잭 손, 조앤 K, 롤링, 존 티파니) ©Charlie Gray